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6일, 박성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9.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025.11.1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의원)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수출·투자·고용을 견인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설비와 전문인력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특히, 산업 내 특정 사업 부문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제조원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신증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특성 및 국내 사업 환경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지역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전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역시 최근 석유화학 구조개편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감축에 치중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며, 금융지원 또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선제적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5.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